

HANURI TOUR 대한항공·아시아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1.877.890.5913~4

기독일보

PH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할리 정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설정, 저렴한 파이먼트
 213.276.8959
 E-mail: usajk@gmail.com

Tel. 213-739-0403 Fax. 213-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November 15, 2012 Vol.364



한인교회의 세계 선교를 이끌고 있는 120여 목회자, 선교사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KWMC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KWMC 제25차 전국연차총회 성대히 열려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이하 KWMC, 대표회장 나광삼 목사,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제25차 전국연차총회가 지난 12일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막했다.

4년마다 시카고 윗튼대학교에서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KWMC의 이번 연차총회는 14일까지 계속됐다. 감사보고를 비롯 회계결산 보고에 이어 중동선교협력기구, 미전도종족임양운동본부, 다민족/다문화선교협력기구,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북한 및 탈북자선교운동본부, 세계선교기도운동본부, 여성세계

선교운동본부 등 각부 보고가 이어졌고, 금년도 총회 관련 본격적인 안건 검토 및 결의에 들어갔다.

우선 총대들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올해 열린 KWMC 2012 선교대회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나눈 뒤, KWMC 조직 보강에 관한 건, KWMF(세계한인선교사회) 확대임원회의의 후원에 관한 건, WMK(세계선교사자녀협의회) 지역선교대회 후원에 관한 건, KWMA(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F·KWMC 공동 원탁회의 개최에 관한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북미주 전역에서 온 120여명의 목회자 및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

운데 이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개회 예배는, 조일구 목사(부위원장,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식순은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의 기도에 이어 김교목 선교사(태국)를 비롯, 조남희 선교사(타지키스탄), 최바울 선교사(중국) 등의 선교보고가 있었고, 대표회장 나광삼 목사(큰무리교회)의 설교 후 성찬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공동의장 배현찬 목사(주예수교회)가 축도함으로 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정한나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쌀 나눈다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 대상자 1만명에 쌀 1만포 목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펼치는 단체의 지도자들이 LA총영사관저에 모였다.

경기침체 속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이 올해도 한인사회와 교회가 연합해 펼쳐진다.

이 운동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주관하고 LA총영사관, 남가주교협, OC교협 등이 주최한다. 나눔 대상은 사회봉사기관,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개인신청자 등으로 총 1만명에게 쌀 1만포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8일 LA 총영사관저에서 '2012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공식 출범식을 갖고, 관계자들은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개인 및 단체, 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신연성 총영사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은 한인뿐 아니라 다민족에게도 온정을 나누는 대표적인 행사"라며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LA 한인사회를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유철 남가주교협회장은 "개인, 교회, 단체들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동시에 따뜻한 마음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현재까지 나성영락교회가 5천포, 나성동산교회가 3천포, 여의도순복음교회가 2만포, LA한인회가 3천포를 헌금하며 총 3만2320포가 모금됐다. 성금을 보낼 곳은 500 Shatto Pl. #315 LA, CA90020(Pay to: Holy City_사랑의 쌀). 문의: 213-384-5232 토마스 맹 기자

GBC 현재까지 514구좌 60만불 모금

미주복음방송(GBC)이 자체 스테이션 구입 완료를 위해 공개후원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GBC는 지난해 2월말 1200만불 가격으로 스테이션 구입 당시 공개모금 방송을 통해 다운페이먼트 자금 200만불을 마련했고, 나머지 1천만불 가운데 은행 용자로 9백만불을, 미 방송사로부터 차입한 '오너캐리'(Owner Carry: 오너가 구입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형식)로 1백만불을 지불했다. 이는 당시 연이자 3퍼센트로 3년 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이었다. 앞으로 1년 뒤면 이자 20만불을 포함해 총 120만불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GBC는 스테이션 구입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금액 총 1200만불 가운데, 우선 연내 이 120만불을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가졌고 익일 12시간 가장 진행된 모금 방송을 통해 당초 목표액의 절반인 60만불을 모금했다. 총 목표 연내 1000구좌 중 11월 13일 현재 514구좌가 확정됐다.

후원참여는 미주복음방송(www.kgbc.com)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하거나 방송사로 직접 전화해 현금 약정을 하면 된다. 문의: 213-381-1190

정한나 기자

선거 결과 복음주의에 재앙... 대안을 찾아라

복음주의, 킹 메이커로서의 영향력 상실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남침례신학교의 앨버트 몰러 총장은 이번 선거에 대해 "복음주의에겐 재앙"이라고 평했다. 이번 선거는 기독교적 정책을 가진 몰론 후보나, 반기독교적 정책을 가진 기독교인 후보나 대립 구도를 띠었다. 교계는 동성애와 낙태, 피임을 지지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강한 반대 경향을 보였다.

예상대로 백인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의 79%가 롬니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4년 부시 대통령 재선 당시와 동일한 비율이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복음주의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동일한 지지를 얻었는데 부시 대통령은 당선되고 롬니 후보는 낙선했다는 점이

다. 그만큼 복음주의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된 것이다. 몰러 총장은 "우리의 메시지가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거절당했다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한 스토리와 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라며 "4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통과되고 일부 주에서 마리아나가 합법화 된 것은 미국의 도덕적 이슈에 대한 인식이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 말했다. ▶2면에 계속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MOTOR OIL, VALVOLINE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입해결, 밀린세금 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전문가, CPAs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Audit, Levies/Liens, Sales Tax, Payroll Tax
 C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3250 Wilshire Blvd. Ste. 900, Los Angeles, CA 90010

Authorized Broker
blue of california
 Blue Shield of California
 An Independent Member of the Blue Shield Association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LIC. # 0A66712

하나 헬스 보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여 드립니다.

- 1947 & 1948 년 생 수혜자를 위한 메디케어 신청
-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세이빙스 플랜을 갖도록 도와줌 (귀하의 자격 해당시, 귀하는 Part B 보험료 등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수혜자가 엑스트라 헬프 플랜을 갖도록 도와줌 (귀하의 자격 해당시, 귀하는 약값에서 더 많은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수혜자의 치과 보험을 도와줌
- 메디케어 보조 보험 & 단체 메디케어 보조 보험 (단체 보조 보험은 귀하의 고용주가 제공 시만 가능합니다.)

하나 헬스 보험에서는 메디케어 Part C 플랜을 도와 드립니다!

- 전화 한통으로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사는 고객님과 훌륭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훌륭한 에프터 서비스)
- 메디-칼의 Plan 선택은? 본사는 귀하가 최적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메디케어 & 메디-칼 플랜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 HMO 대 PPO에 대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C 플랜 귀하의 현재 의료 및 재정 상황에 맞는 최선의 PPO/HMO플랜과 건강상태에 알맞는 의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Blue Shield of California is a health plan with a Medicare contract.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ORANGE COUNTY 6011 Orangethorpe Ave. #A Buena Park, CA 90620
 ROWLAND HEIGHTS 1722 Desire Ave. Suite.106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1-855-386-3088
 H0504_12_331_KO CMS Accepted 10072012

워싱턴 주 동성결혼 합법화, 앞으로 변화는?

공립학교 동성교육 활성화, 공공장소 동성에 비판 금지 등

워싱턴 주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은 공식 동성결혼 커플의 폭발적 증가다. 가장 최근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뉴욕 주의 경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1년 만에 최소 1만여 쌍이 동성결혼식을 올렸다. 2008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가 주 민방위안으로 폐지된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동성결혼 효력이 발생 한 지 석달 만에 1만 1천 커플의 동성부부가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결혼을 인정한 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4년 동안 1만385쌍의 동성애자가 결혼식을 올렸다. 2010년 동성결혼이 인정된 워싱턴 DC 법원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한 다음날 150쌍의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다. 아이오와 주와 코네티컷 주 역시 동성결혼 허용 첫날부터 동성결혼식 행렬이 줄을 이었다.

동성결혼 위해 워싱턴 주 방문 및 동성결혼에 따른 관련 사업 특수

서부 지역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을 위해 멀리 동부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 특히 동성결혼 합법화가 저지된 캘리포니아 주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을 위해 워싱턴 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 거주 동성애자들과 타주에서 온 동성애자들이 워싱턴 주에서 결혼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정부의 세금 수익 증대와 결혼 관련 직종의 특수도 조심스럽게 예측되고 있다.

동성결혼 옹호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은 뉴욕시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지 1년 만에 2억5천9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결혼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입 증가 외에도 동성부부가 결혼할 경우 증대될 소득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보장 비용 절감도 기대하고 있다. 동성결혼시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 기존 사회보장 수혜자가 수혜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 커플 결혼을 위한 사업도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



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예상된다.

오와 주 관광안내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타주 동성 커플들의 결혼식 유치를 위한 광고를 준비했고, 결혼 관련 사업체들이 축제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고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도 했다.

동성결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결혼 관련 사업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동성에 인식에 대한 교육 훈련도 강화될 전망이다.

공립학교 동성에 교육 활성화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성간 결혼을 이성간의 결혼과 같은 개념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신의 비판적 입장을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교육계는 동성애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하나로 이미 많은 동성애자 및 동성애 옹호 교사들이 교직에 있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분위기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2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다룬 동화책 킹 앤 킹(King & King)을 읽어준 사실이 드러났으며,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교사를 옹호했다. 교육계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성애 가정', '동성애포비아', '성적 성향' 등에 대한 이슈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다.

심지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던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는 한 교사가 18명의 1학년 학생들을 동성결혼식에 필드트립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부모들과의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동성에 비판 금지 동성에 관련 소송 증가

워싱턴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할 경우 법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교육이나, 비하하는 발언을 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메사추세츠 주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동성결혼 교육을 반대하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단, 워싱턴 주에서 승인된 이번 합법화 법안에는 종교기관이나 종교부속학교가 동성결혼식을 거부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다.

DOMA 폐지에 올인할 가능성도

동성애자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따라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결혼과 함께 입양 절차도 수월해진다. 그러나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연방정부의 결혼 보호법인 DOMA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같은 연금, 세제 상의 법적 이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DOMA 폐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언 김 기자

재외한인예장 연합찬양축제 개최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



교단에 소속된 교회 성도들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가 2012년 추수감사연합찬양축제(서부 지역)를 11일(일) 오후 4시 30분에 올림피아장로교회(정장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축제는 예배에 이어 찬양집회 순서로 진행된 가운데, 총회장 송환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감사하라'(살전5:18)는 제하에, "우리는 청교도들이 세운 위대한 기독교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 모습이 많다"며 "환경을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여건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이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감옥은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수도원이 감

옥이 될 수도 있고, 감옥이라도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곳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삶이 지옥일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말씀을 묵상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목사는 "진짜 축복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다"라고 강조했다. 설교를 마치고 미국과 조국, 총회, 노회, 지교회 부흥을 위해 합심기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또한 방익수 목사(사랑의방주교회)와 심형섭 목사(하늘빛선교회)의 뜨거운 찬양인도는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됐다. 방익수 목사는 "신앙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자"고 호소하며 찬양을 이끌기도 했다. 토마스 맹기자

<1면에 이어> 복음주의의 정치 접근법 수정돼야

오바마의 조연자이자 웨슬리안학교의 교수인 슌 케이지 씨는 "그동안 복음주의자들의 표는 킹메이커 표로 인식됐지만 이제 그 세력이 죽었다(dead)"라고 직설했다. 그는 "빌리 그래함 목사가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별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퓨리치포럼의 선임연구원 그렉 스미스 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던진 표가 다른 그룹의 민주당 지지도를 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흑인 개신교인의 95%가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4분의 3에 해당하는 라티노 가톨릭 신자가, 10%의 유대인, 70%의 무종교인이 오바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지메이슨대학교의 마크 로젤 교수는 "복음주의자들은 릭 페리, 미첼 바크먼, 뉴트 김리치, 릭 샌토럼 등을 지지하며 물론인 롬니 후보가 되자 이들의 힘은 결집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1980년대와 90년대의 팻 로버슨이나 제임스 톱슨과 같은 영감어린 지도자도 이번엔 없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몰러 총장은 "이제 복음주의는 정치에 대해 근본적이면서도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젊은 미국인과 라티노, 다른 소수자 그룹에 다가가지 못하면 우리 퇴물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형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 213-252-9036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개교 35주년 기념 후원의 밤

- ◆ 일시 :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저녁 7시
- ◆ 장소 :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Oxford Palace Hotel)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9-8000
- ◆ 순서 : 1부 개교 35주년 감사예배(말씀:서정운 목사) 2부 만찬 3부 후원의 밤
- ◆ 특별순서 : 본교 중창단, 필리우스 중창단, 로그댄스선교단(워십맨스) 최용순 장로(크로매틱하프) 이호준 교수와 김혜정 교수(피아노 듀오) 백철현 목사(바이올린) 조수연 자매(남미워십 LAMP 메인싱어) 간증(Testimony)

◆ 본 행사는 RSVP로 확인이 되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562-926-1023)

2013년 신[편]입생 모집

- ◆ 불학기 개강일 : 1월 28일 (월)
- ◆ 모집 : 대학부(신학-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대학 졸업자) 구비서류 등 입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www.ptsa.edu)입학안내를 참조할 것.

*본교는 미주지역 한인 최대 교단인 해외한인장로회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직영 신학교로 졸업 후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 가능.
*본교에서 2년 수학 후 졸업할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 목사 고시 후 목사 안수 가능.
*본교 졸업 후 KPCA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 이명 가능.
*다양한 장학 제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교육국(BPPE) 인준된 학교로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임.

ABHE 정회원 | ats 준회원 | SEVIS I-20 발행 | 이사장 김인식 목사 | 총장 이상명 박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 www.ptsa.edu

LA 기윤실 “교회건축을 진단한다”

독거노인 구제에 앞장선 방주교회 등에 사회봉사상 수여식도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8일 오후 한인타운 내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강당(3130 Wilshire Bl. LA)에서 ‘교회건축을 진단한다’라는 주제로 건강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기윤실의 정책 방향에 맞게, 교회 건축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등의 이슈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는 손경호 목사(보스톤성령교회 담임, 기윤실 실행위원)와 조만연 장로(북부장로교회, 기윤실 실행위원)가, 패널토론은 이용욱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담임)와 송병주 목사(선한정지교회 담임)가 각각 맡았다.

손경호 목사는 ‘하나님 먼저, 건물 먼저?’라는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한국교회의 세습 기류가 전염병처럼 번지는 세태이지만 작은 건물을 가진 교회일수록 세습의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를 볼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교회가 돈의 대물림과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꼬

집었다. 그러면서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손 목사는 예루살렘 성전과 현대교회 건물의 연관성을 짚어보고, 신구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전’에 대한 해석 및 인식을 언급하면서 “성막과 실체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가시적 건물의 존재 의미를 찾아 말아야 한다. 보이는 건물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도 버리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과거 로마 가톨릭의 정치적인 우월성을 차지했던 ‘교회 건물’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지적, 오늘날 현대 교회가 당연한 교회 건축의 문제성을 날카롭게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교회 건축 비리에 대한 해법으로 는 >목회자 수 조절 >신학교 개혁 >다목적용 교회 건축 방법에 대한 연구 >교회 건물 크기 에 대한 세금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만연 장로는 ‘한인교회의 건축과 재정’이라는 제하에서 한인교회의 건축 문제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현재 남가주 내 상당수의 교회들이 건물의 신축이나 부동산 매입 등의 후유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실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건축을 무리하고 맹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데 문제가 있다. 특히 교회 건축 현금의 강공책은 교인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뿐”이라면서 “교회 내 재정구조와 회계처리 투명한 하계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상의 모순과 부조리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시상식도 열렸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봉사를 실천하는 교회, 단체, 개인을 알림으로써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 봉사상의 첫 번째 수상자로는 방주교회(담임목사 김영규)와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회장 이정희)가 선정됐다. 방주교회는 교인수 70여 명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의 후원을 유치해 2010년 9월 이래 매달 두 번째 목요일 한인타운에서 소외된 독거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미주리 로버츠빌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선교 전국연합회는 외국인인과 결혼한 뒤 이혼한 여성들과 고통 당하는 한인 이웃들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평화의 집’을 운영 중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각 1,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됐다. 정한나 기자



손경호 목사



조만연 장로



기윤실 실행위원 이용욱 장로(좌)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우)에게 상을 수여했다.

재미한인예장(고신) 28회 총회 총회장 박대근 · 부총회장 전성철 목사

“시대 이끄는 교단과 교회 되자”

지난 10월 30일(화)부터 11월 1일(목)까지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당(박석현 목사)에서 개최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제28회 총회에서 박대근 목사(오렌지카운티목사회 증경회장, 현 예수비전교회 시무)가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박대근 총회장



전성철 부총회장

박 목사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와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총회 개회예배 설교에서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며 떨었던 것처럼, 우리 교단이 이 같은 축복을 풍성히 받길 원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성도의 자부심을 회복함으로 교회와 시대를 이끄는 교단과 교회와 성도가 되자”고 말했다.

총회장으로 선출된 박 목사는 한 회기 동안 교단의 대화합, 교단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차세대 교육과 세계선교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특히

타 교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전도와 세계선교에 박차를 가하는 교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목사 부총회장은 전성철 목사(중부, 시카고 여수문교회), 장로 부총회장은 김봉재 장로(동부, 뉴저지제일한인교회), 총무에는 전병두 목사(북서, 오레곤유진중앙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현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는 남미를 포함해 미 전역에 약 150여 개가 있으며 교단 직영 신학교인 Evangelia University(총장 신현국 박사)가 있다. Christian Times(사장 이윤태 장로)와 Family Saver Center(소장 이충근 목사) 등의 기관은 이 교단 소속 목사 혹은 장로가 봉사하는 기관으로, 초교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목사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6년도에 도미해 비블리컬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어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토마스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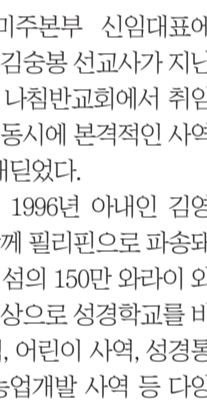
GP선교회 미주본부 대표에 김승봉 선교사

“이 시대 감당해야 할 사명 굳게 붙들겠다”

GP선교회 미주본부 신임대표에 새롭게 취임한 김승봉 선교사가 지난 12일 오후 4시 나침반교회에서 취임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역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김 선교사는 1996년 아내인 김영선 선교사와 함께 필리핀으로 파송돼 17년간 사마르 섬의 150만 와라이와 라이 종족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비롯 캠퍼스 사역, 어린이 사역, 성경통신교육 사역, 농업개발 사역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 4년간 대표직을 맡아 섬기게 되는 김 선교사는 “우선 대표로서 제반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이 시대 GP선교회 미주본부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사역의 정점에 두고 나아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봉 선교사(우)와 김영선 선교사(좌)

GP선교회는 한국에서 처음 출발한 선교단체로 현재 전 세계 32개 국가에 291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정한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부담없는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유티퍼미트와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의도 Bus 2071 Lajolla Fairfax ORT 맥도널드 Wilshire

추수의 계절 맞이한 일본 선교... 성령 충만 구해야

일본선교전략 세미나 열려

일본선교전략 세미나가 주님의영광교회 미주일본인선교훈련원 주관으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란 주제로 열렸다.

일본선교는 지금이 추수의 계절이라고 선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일본 센다이 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 센다이 지역에서 선교를 펼치고 있는 현지 관계자에 의하면, 재난 후 많은 크리스천들의 자원봉사와 섬김으로 이재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주일본인선교훈련원 측은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하며 기도도를 요청했다.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 목회자들이 함께 자리해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 일본선교에 대해 토의하고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신승훈 목사가 주제강연자로 나섰다. 신 목사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며 교회를 한번 정하면 거의 바꾸지 않는다. 일본이 복음화되면 세계 선교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민족 복음화는 일본 교회 내 크리스천들의 전도운동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또 해외 일본인 디아스포라들을 이용해 일본을 복음화 할 수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본이 복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

설 때 일본은 밝은 빛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본인 목회자 이이다 고베로 목사와 다나베 유타가 목사가 주제 말씀을 했으며, 오후에는 스키 야마 목사, 이네노 미노루 목사, 심상은 목사, 다카기 준 목사, 라순용 장로, 좌영진 목사가 패널토의를 했다. 한편, 이날 헌금은 일본 동북 지역에 쓰나미로 무너진 교회에 전달될 것이다.

다음은 신승훈 목사의 주제 강연 요약문.

"일본이 복음화 되면 세계 선교에 놀랍게 쓰임받을 것이다. 지금은 일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다. 일본 목회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일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이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 목회자들이 일본에 돌아가서 부흥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일본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깨우기 위한 제자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평신도들이 단기선교를 많이 가고 있으며 세미나와 교육을 한다. 일본 교회에 찬양 붐이 일고 있다. 또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활동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선교는 세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본 교회 내에 크리스천들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복음화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외 일본인 디아스포라를 이용해 일본을 복음화 하는 것이다. 일본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해



신승훈 목사(우측)가 일본 선교에 대해 주제강연을 전하고 있다. 그는 전략적 일본 선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외에 나가 있다. 특별히 미국에도 많이 있다. 300만 명 정도라 한다. 일본에서는 복음화 비율이 1%지만 미국에서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한다.

해외 주재원, 유학생, 대사관 직원, 그들이 일본으로 복음을 들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 해외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쉽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일본이 복음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더 많이 알고 선교에 참

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선교사들 목회자들 평신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일본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나라다.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 김영숙 집사라는 평신도가 있었다. 이 사람은 일본어를 잘하고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 일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겼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일본 목장을 만들어 35명이나 모였다. 이 분은 성령 충만해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다 남편이 직장을 서울로 옮기며 김 집사도 서울로 갔는데 은누리

교회에 출석하며 그곳에서도 일본 목장을 만들었다.

성령 충만한 한사람의 열심이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길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기도해야 한다.

일본을 알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럴 때 일본은 밝은 빛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제는 일본 선교가 열릴 시대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그 일들이 이뤄지길 축원한다.

토마스 멩 기자

사람을 살리고픈 미용인이여, 이곳에 모여라



김인태 안수집사(사진 좌측)는 올해로 11년째 미용선교사 양성에 열심이다.

나성순복음교회 이미용선교국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달란트, 미용 기술을 활용해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장에 나성순복음교회 이미용선교국(회장 홍운희 집사)으로 가 보라. 이곳에 가면, 갓 미용을 배우기 시작한 초보부터 미용 고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미용인들이 총집합해 있다. 벌써 11년째 열리고 있는 헤어컷 강좌가 올해도 성황리 진행 중이다.

미용을 통한 선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개설된 이 과정은, 이·미용선교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참여해 헤어컷과 퍼머 등 미용기술을 배울 수 있다. 매 주일마다 기초반(오전 9시 30분~11시), 중·고급반(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오후 1시~2시)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는 10개월 과정, 회비는 한 달에 10불이다.

나성순복음교회 선교국(국장 김인태 안수집사) 산하 이미용선교국에선 헤어컷 강좌 외에도 거리선교회와 협력해 LA 다운타운 내 크로커와 3가 길 인근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 7시부

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그간 나성순복음교회 미용학교를 통해 배출된 미용 전문인력은 250여 명으로, 현재 다운타운을 비롯, 산타 아나 시청, 리버사이드 시청 등지에서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내달 열린 행사에서는 점퍼, 이불 등도 나눠줄 계획이다.

김인태 집사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 가운데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정보를 몰라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누구든 관심 있는 분들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타 교회 성도들도 대환영"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213-392-2323 정한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각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뚫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재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한의원)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면과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Th.D · Ph.D학위 7명 · M.Div학위 7명 \$10000,00 장학금지급**

본교의 특징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of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③ Lee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공 최상의 장학금 지급 편입생 우대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48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장로의 사명과 자격

디모데전서 3: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미쁘다’는 말은 진실되고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전적인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고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겠다는 입장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세속적 기대와 꿈을 버리고 이권야심, 명분, 명예를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봉으로 만족하며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교회에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섬기는 자로서 충성하는 본을 보이며, 순교해사라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다시 없는 삶의 의미로 알겠다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로 장로직을 세워야 합니다.

장로는 신앙인격 기준으로 분별해서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로는 당회장 목사를 보필해서 양무리들을 보살피야 합니다. 그 중 영적인 소망을 가꾸어 가기 위해 목사가 한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얼마나 생활에 옮겨 실천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지 살피는 일을 장로가 맡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애경사는 물론 병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대표자로 당회장과 함께 협조하여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신앙이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지도하다가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당회장에게 보고하여 권면이나 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의식 속에 잘못된 폐단은 자신들을 치리하고 권면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만 장로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투표해서 장로를 세울 때는 내가 투표하여 세우는 자의 신앙이 내가 생각할 때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자이기 때문이고, 내게 부족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 분을 통해 지적받고, 권면받고, 위로받아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감독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책망 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다른 양떼들의 사생활을 신앙기준으로 보살피고 권면하고 지도, 책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잘못 살아가면서 교인들의 생활을 지도한다면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첫째, 진리를 정통하게 올바르게 깨달은 자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근본적인 회개 역사를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4:6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를 불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 년씩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친히 나타내신 이적기사를 다 참관할 수 있도록 보여 주셨지만, 그들을 복음전도자로 내보내실 땐 그들에게 귀신을 제압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마를 몰리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 전도하는 과정에서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항복하고 도망가더라는 간증의 보고가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배운 진리의 지식이나 훈련받은 경험으로만이 아닌 성령으로 무장되어 그 능력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행1:4-5).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택하여 세운 그릇이어야 합니다. 직분은 받았지만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불구자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장로로 택하시어 불러 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영력으로 가르쳐 다듬어 오신 일꾼이어야 제 구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가정의 일이나 개인의 어떤 입장보다도 장로라는 그 직분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순교적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망 받을 일이 없는 장로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할 줄 알며, 허영과 허세를 일삼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며, 가르치기를 잘 하며,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남을 구타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너그럽게 용서할 줄 알며, 아무와도 시시한 일로 함부로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믿음으로 신앙체질이 일치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범적인 가정 분위기를 이룬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겠냐고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교회 다닌지 얼마 되지 않은 자여서도 안됩니다. 신앙은 연단을 통해 성화되어져 갑니다. 많은 연단을 거친 신앙인격은 백전노장(百戰老將)과 같습니다. 장로(長老)는 영어로 엘더(EL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늙은 어른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이만 많은 늙은 자들이 아니라 신앙인격으로 늙은 어른들을 말합니다. 많은 연단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타인들의 신앙을 살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스승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 입교한 자가 감독을 맡으면 교만하여 비인격적 처신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교회 헌법에는 세례 받은 후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로 흡 없는 입교인이면 장로 후보자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본 교회에서는 오래 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7년 이상 된 자로 후보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밖 사람들은 교회 권위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의 울무에 빠져들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고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가 되었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자들은 애초에 세

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는 두 가지 구분된 직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 무리를 맡아 목회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1-4에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하는 장로, 즉 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 스스로도 “나는 함께 장로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사명의지를 나타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도했던 증인이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치고, 샅군과 같이 대접받을 것을 생각지 말고 영적인 소망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책임지는 목회자의 사명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양 무리를 함부로 다루지 말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받들어 살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비뚤어진 이성과 목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7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16-17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신 것은 영적인 사명 하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속상하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양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불행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되어진 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러나, 목회자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0:26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교회 목사의 영적인 사명지도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마귀와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올바른 지도함에도 멸망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스스로 망해가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장로의 두 가지 구분된 직책 중 또 하나는 현재 교회에서 세우는 목사를 보필하기 위해 양 무리의 감독자로 세움을 받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1:5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목회하는 목사에게 여러 가지로 보필하는 감독자의 직분으로 장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6-9절에는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내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3:1-7의 말씀과 같습니다.

교회의 대표는 당회장이며, 교인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양 무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데 목적이 있고, 장로는 감독자로 목사를 협조해서, 그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지도해서 잘 순종하고 복종해서 영적인 소망을 제대로 잘 가꾸어가고 있는지 살피서 권면이나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권면이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회장에게 고해야 하며, 당회장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량한 양떼를 바른 진리로 가르치고 그들의 신령한 소망을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 교회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사명과 자격으로 장로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책망 받을 일 없는 신앙인격자, 많은 신앙 경험의 연단을 쌓은 사람이야 진정한 장로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애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의한인정교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jruniv.org</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 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us</p>	<p>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사(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p> <p>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믿음을 양성</p> <p>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설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a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학 목사의 비전</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p>	<p>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주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p>

장로 임직식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벧전 5 : 3~4)

여러분들을 모시고 시무장로로 안수하는 임직식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드리려 하오니 오셔서 축하의 박수를 보내 주십시오.

장로 임직자 : 李奉鈞

일시 : 2012년 11월 18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주온유 선교교회

대한 예수교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미주노회 주 온유 선교교회 흥 성표 목사
Tel. 818-425-2509 / Fax. 818-248-4641
2770 Sanborn Ave. La Crescenta, CA 91214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현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기주교회합의회, 남기주한인목사회, 남기주 총회예배부, 벨렐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기주향해도도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사우스베이목사회 주최 음향영상세미나 열려



레이저비전의 김영덕 부장이 목회자들의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지와 레이저비전이 주관하는 무료 음향영상세미나가 11월 7일 가디슨 교회를 대상으로 이룬 위주의 나선교교회에서 열렸다.

행됐다.

세미나의 강사로 나선 레이저비전의 김영덕 부장은 목회자의 설교에 제일 필요한 마이크 사용법, 앰프 사용법에 대해 강의했다. 또 최근 목회자들이 자주 쓰는 이어타입의 마이크 사용법, 여러가지 마이크에 따른 음향 기기의 조화법에 대해서도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사우스베이목사회 목회자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며 여러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본지와 레이저비전은 향후 지속적으로 미디어 사역자가 부족한 남가주의 교회들을 돕는 취지로 음향 조명 영상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토마스 맹 기자

CTS 한인 목회자 및 신학생 설교세미나 성황

참석자들 "이런 자리를 기다려 왔다" 호평



세미나 참석자들이 도서관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했다.

컬럼비아신학대학원(이하 CTS) 한인학생회(회장 백성인)가 주최하고 CTS한인목회연구소(소장 허정갑)와 CTS한인동문회(회장 김재홍 목사)가 후원한 설교세미나에 동남부 지역 목회자들과 재학생 등 40여명이 모여 한인 목회 현장의 설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5일 CTS 해링턴센터 시청각 강의실에서 열린 세미나는 '한인 사회 상황에 맞는 설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신학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회자 및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세미나는 3명의 전문교수들의 발표 발표와 좌담을 거쳐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이날 '설교'에 대해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운용 한국 장신대 설교학 교수는 '현대 목회와 설교', '성경적 설

교와 성경 해석', '현대 커뮤니케이션과 설교 전달' 등 3개의 강의를 진행하며 ▲21세기 설교의 특징 ▲한국인 설교자들에게 부족한 성경 본래의 의미 전착을 바탕으로 한 설교 ▲설교 내용의 전달방법의 효율성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언어적 설교만이 아니라, 오감을 모두 사용한 '공감' 설교가 최근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설교자들이 과중한 설교 횟수에 눌려 설교 준비 때 성경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자체의 역사적 전후맥락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설교자의 영혼구원의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열정이 설교 준비에서 결국 드러나게 된다"며 "현대 커뮤니케이션과 설교 전달에서 많은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설교자가 전달자로서 메시지에 대한 진정성을 담

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교수 이외에 한국 한일장신대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섬기다 은퇴한 다니엘 아담스 선교사가 한국 장로교회들의 신학 흐름에 대해 강의했다.

또 컬럼비아 소재 조지아주립대학교 국제경영학 종신 석좌교수이면서 CTS 목회학 석사과정 학생이기도 한 하종욱 교수가 교회를 하나의 조직으로 볼 때 경영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원근 각지에서 방문한 한인 목회자들은 "동남부에서 한인 이민목회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과 토론의 자리가 전무했던 상황을 비춰보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며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각종 사례들을 나누었다.

미주성결교 코너스톤교회 창립대



교회 창립예배를 드린 후, 교회와 교단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 위치한 코너스톤교회(오명현 목사)가 최근 창립됐다. 이 교회는 미주성결교회(총회장 김광렬 목사)의 남서부지방회(회장 김창수 목사)에 소속돼 지난 10월 21일 오후 4시에 미국 코너스톤교회에서 한인교회로 개척됐다. 창립예배에서는 이정근 원로목사(유니온교회)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6-18)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조종근 목사가 권면과 격려사를 했다.

선교사 위한 추수감사만찬 열린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도 선교사들을 위한 추수감사만찬이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1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며 교회 주소는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문의는 626-810-3455로 하면 된다. 교회 측은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 늘 선교사에게 빛진 마음, 또한 현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들을 모았다"고 전했다.



추수 감사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크로버 탄소매트



초극세사 원단 사용

고급스러운 풀잎 패턴으로 실내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전자파 차단

매트안에 전기선 대신 폼의소재 탄소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었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일반 전기와 달리 원적외선 복사열 발산으로 몸 전체를 훈훈하게 하며 원적외선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세 절감

열효율이 뛰어나 전기사용료를 절감해 줍니다.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취침기능/온도조절기능

좌우 분리난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물세탁 가능

세계 최초의 발명특허인 방수절연 기능의 특수 4중 "안전코팅"으로 물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세탁 권장)

속면! 곰팡이 억제!
항균! 냄새 제거!



확실한 품질보장
제품문제시 1년간 무상수리



TWIN	FULL	QUEEN	KING
\$249	\$289	\$349	\$429

매트 안을 비교해보세요!



제품 바닥면을 고급 원단에 도트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크로버 탄소매트로 건강과 따스함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신제품!

크로버 탄소방석 (차량겸용)



DC12V용 직류식 탄소섬유 온열방석

베이지

라벤더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 ABC 플라자 (213) 386-1155
* 헬스코리아
-아씨마켓 (213) 487-4986
-갤러리아 (323) 733-4986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 헬스코리아 (714) 521-1005

Gardena
* Marukai (310) 660-6300

Torrance
* 굿 네이비스 (310) 326-6666

Cerritos
* 이불나라 (562) 402-3737
Garden Grove
* 주방나라 (아리랑마켓) (714) 539-8860

San Diego
* 이불나라 (시온마켓) (858) 496-0766
* 굿 네이비스 (858) 874-7777

Santa Clara
* 이불나라 (408) 834-3004

고국 사랑 대잔치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지인들께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보화를 캐는 법... “새벽기도”

LA기쁨의교회 이희문 목사 인터뷰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벽을 깨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희문 목사는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며 밤에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했다. 동양선교교회 선교담당 목사를 거쳐, 3년전 코리아타운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다. 오랫동안 코리아타운을 누비며 전도를 해 왔던 터라, 코리아타운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이 목사는 직장에 다닐 때 아침 일찍 출근하는 습관이 있었다. 다른 직원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어느 날 이 목사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지켜보다가 흥미로운 현상 한가지를 발견했다. 주차장에 아침 일찍 들어오는 차량일수록 고급 승용차가 많다는 것이었다. 고급 승용차가 제일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형차, 그리고 출근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소형차 순으로 차들이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통계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가의 평균 기상 시간은 새벽 5시라고 한다. 그들은 보통 아침 6시 이전에 집을 나선다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새벽을 사는 사람, 새벽형 인간이었다.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새벽을 살도록 강조한다. 누군가가 “하

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이 목사는 서슴없이 새벽시간이라고 말한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입을 열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새벽시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새벽을 사셨기에 우리도 새벽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일과 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새벽 오하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났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며 하루를 설계하고 준비하셨다.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새벽을 습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보내셨다.

이 목사가 새벽기도회를 매일 쉬지 않는 이유가 있다. 다른 교회들이 새벽기도회를 갖기 때문이 아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새벽을 사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목사는 “새벽기도회는 기도의 삽으로 땅 속 깊이 숨겨 있는 보물을 파내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 열심히 기도의 삽질을 하도록 권면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귀중한 것을 땅 속에 숨겨 놓으셨 습니다. 새벽기도는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삽이요, 비밀 병기입니다. 새벽에 기도의 삽으로 땅 속 깊이 박혀 있



이희문 목사가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새벽기도를 감추인 보화를 캐는 삽이라고 말한다.

는 보물을 캐내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 두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루터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새벽을 살았다. 루터는 하나님과 첫 시간을 보낸 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 목사는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이다. 새벽 없이 생명 없고, 새벽 없이 부흥 없다. 새벽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시간이고 기적의 시간이다. 흥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시간도 새벽이었다. 새벽은 생명의 시간이고,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1년 365일 총만하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두는 시간은 새벽

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만나 는 새벽에만 거둘 수 있었다. 다윗은 환난 중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시 57:8)라고 고백했다. 오늘부터라도 새벽을 살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벽 은혜를 경험하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한주연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컬러 작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가 성직”

BIC미션 정기모임 LA기쁨의교회서 열려



BIC미션 회원들이 직장에서 일터를 복음화할 비전을 토론하고 있다.

기독교 경영인들의 현장 경험을 전수받아 참된 크리스천의 가치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한 BIC미션(Business In Christ) 정기모임이 지난 목요일 저녁 LA기쁨의교회(이희문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순서는 이희문 목사의 말씀과 함께 그룹토의, 기도회 순으로 이어졌다. 콜로사서 3:22-24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1. 신전 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2. 주님을 섬기듯 일하라 3. 약속의 상을 주심을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비즈니스 하고 있음을 기억하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모든 언행심사를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신 로마서 말씀을 따라,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권세자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직원들을 대하면서 주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며 “세상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유업의 상과 약속의 상을 반드시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면서 “모든 비즈니스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며 “매순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그룹토의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이 목사가 전한 말씀을 자신들의 일터와 비즈니스에서 적용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었고 각자와 서로의 기도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BIC미션은 지난해 7월에 설립됐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의 삶과 일터에 임하도록 한다’는 목표로 비즈니스 선교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매달 정기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기독교영인, 직장인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323-496-1971

한주연 기자

통신으로 성경공부 해볼까?

ANC온누리교회(유진소 목사)의 통신성경공부팀에서 통신으로 가정에서 혼자 성경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성경공부팀에 따르면 공부할 교재는 성경을 재미있게 정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등록한 가정에 격주로 우송된다. 또 공부한 교재를 교회에 반납하면 점검 후 공부할 새 교재를 다시 우송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성경공부팀 관계자는 “이 성경공

부는 연구라기보다는 말씀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항상 말씀과 함께 하는 여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특히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성경공부 모임에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미전국 성도님들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새해 첫 주일부터 1년간 구약성경을 정독하게 된다. 1차 등록 마감은 11월 말이다. 우송료는 25달러.

문의: 213-273-6751(김정길 장로)

투명, 순결, 검소, 절제... 목회자 윤리 선언문 발표된다

한목협 내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 곧 발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9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윤리선언문을 발표한다.

한목협은 최근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목회자들의 윤리적 사명 수행을 돕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 위원회 회장은 손인웅 목사(덕수교회 원로), 서기는 정주재 목사(향상교회 담임)가 맡았으며, 위원은 (호칭 생략) 김명혁 박경조 박정근 백장흠 손봉호 손인웅 신화석 엄현섭 이동원 장차남 전병금 정주재 추연호 최복규 현해춘 홍정길 등이다.

동 위원회가 발표할 선언문에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자정(自淨) 노력을 계속할 뿐 아니라 감시 감독의 책임도 다할 것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결혼의 존엄함과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분이 되어야 한다 ▲검소와 절제의 모범을 보이며 교육적 사명을 다할 것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일을 삼갈 것 ▲타종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진 신앙과 종교시설을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사전

에 공개된 선언문 전문.

한국교회목회자 윤리선언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든 위기는 목회자의 거룩성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교회에서 거룩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마땅히 윤리적인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로 오염된 몸과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결을 이루는 일에 마땅히 헌신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만으로는 이런 과업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우리 모두가 연합한 동역자들로서 서로 돕고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통감하여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를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목회자들의 윤리적 사명 수행을 돕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오

늘의 윤리선언이 선언적 의의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목회자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며 이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목회자윤리선언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되심(the Lordship)을 거듭 확인하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워 떨며(시 99:1) 삼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목회자의 권위는 겸손과 섬김과 희생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이 가장 귀한 사역이라는 그리스도의 교훈(막 10:45)을 받들어 부와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이기고 평생토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돈을 쓰는 일이 없도록 자정(自淨) 노력을 계속할 뿐 아니라 감시 감독의 책임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성서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되(롬 12:2)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 행할 것이며, 나아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목회자 스스로 정직 근면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양심운동과 정직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재정운영이 목회자를 부패시키고 교회의 화합을 깨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따라서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다. 이로서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적극적으로는 선교와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진력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목회자는 결혼의 존엄함과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창 2:24). 그러므로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뜻대로(엢 5:22-27)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현대사회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순결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의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는다. 교회는 담임목사의 소유가 아니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나 친족에게 담임목사의 자리를 대물림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지금도 한국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세습”을 근절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왜곡된 복 사상, 교회의 양적 성장주의 추구에 함몰되지 않도록 즉, 세속

화와 인본주의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에 치우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며 교회의 갱신과 진정한 부흥을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자연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활습관과 문화를 기르고 발전시키기 위해 목회자로서 검소와 절제의 모범을 보이며 교육적 사명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교회와 국가가 사역의 영역에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일을 삼갈 것이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의 구분이 기독교인들의 사회 정치적 책임과 권리를 유보케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시민으로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포함한 공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기독교 진리의 탁월성을 믿는다. 동시에 우리는 타종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가진 신앙과 종교시설을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천명한다.

주후 2012년 11월 29일
한국교회목회자 윤리위원회

류재광 기자

한기총, 대선 앞두고 엄정 중립 선언

'바른 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 열고 특별 기도회



참석자들이 선언문 발표 도중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대선을 앞두고 12일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바른 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한기총 박진복 의료복지위원장이 사회, 홍재철 대표회장이 대회사, 예장개혁 정학재 총회장이 대표기도, 예장합동진리 박중선 총회장이 성경봉독, 수원영통영락교회 찬양대가 찬양, 엄신형 중경회장이 설교,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이 격려사, 이강평·김성광 공동회장이 축사했다.

먼저 대회사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가 나아가갈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대회를 마련했다”며 “기독교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정직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행 13:22)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중경회장 엄신형 목사는 “나라의 흥망성쇠

는 하나님께 달렸기에, 이 나라가 굳건히 서서 세계 일류가 되고 세계의 선진대열에 앞장서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회장 김성광 목사는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선진국가를 지향해야 하는데, 제3의 길인 중북좌파로 빠져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이 나라를 바로잡는 주체 세력은 바로 기독교다. 이러한 때에 한기총이 바른 정치 실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복”이라고 했다.

이어 경서교회 우먼콰이어가 특송했고, 예장개혁총연 최원석 총회장, 예장연 조성훈 이사장, 그리스도 의교회협의회 김탁기 총회장, 예장연합 정초자 총회장이 각각 나라 안전과 대선을 위하여,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하여,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국교회 발전을 위하여 특별기도했다. 한기총 윤덕남 부총무가 선언문을 낭독했고, 오관석 명예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전기도는 하태초 공동회장이 했다. 류재광 기자

기감 감독회장 선출 위해 다시 선관위 구성

한국 법원에 의해 중단됐던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서울남·동부 연회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일정이 다시 시작됐다.

12일 오후 4시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강일남 감독(전 충청연회)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출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남은 선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 뽑히는 감독회장이 취임하면 감리회 사태가 깨끗이 마무리될 것”이라며 “절서를 잘 잡아주셔서 후유증 없이 선거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

다. 감리회 측은 대략적인 선거 일정도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후보등록 30일 전에 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해야 하고,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 말 후보등록, 내년 2월 말 선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일부러 취임까지도 1개월 정도가 필요해, 취임식은 내년 3월 말 있을 사순절과 부활절 후인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선관 위원장은 “상식적이고 관례적으로 선관위를 운영하고, 법적 제재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한 보완·개선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WCJU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랠프와 로버타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암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LA 지역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의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의 빛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만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우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화-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4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선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 신의 호를, 바른 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LA 동부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토)
3부 오전 11:30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고태형** 담임목사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점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전길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뉴욕교협, 샌디 피해 교회들 지원 나서

모금 활동 시작, 월드비전 등 다양한 단체도 활약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이 뉴욕의 피해 지역에서 비상식량을 배부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큰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현지 교계 단체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교협(회장 김중훈 목사)은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일원의 교회들을 위해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회원교회들에 요청한 상태다. 뉴욕교협은 이달 말까지 모금을 실시해 가장 피해가 큰 교회나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평소 병자들을 찾아가 위로 공연을 열고 있는 음악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플러싱 퀸즈칼리지 체육관에 거주하고 있는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로공연을 펼친다. 현재 이곳 쉼터에는 450여명의 샌디 피해자들이 거주 중이다. 이날 공연은 이정은(소프라노), 그레이스 윌렛(바이올린), 주디 강(바이올린) 등이 맡아 클래식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예정이다.

국제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은 이미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집을 떠나 있거나 정전으로 인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방한용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퀸즈를 비롯해 뉴욕의 피해지역에 겨울 옷, 담요, 비상 식량 키트와 같은 구호품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뉴욕 스테이트 아일랜드와 뉴저지 주 Jersey City, Hoboken에서 피해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복구 및 물품지원 활동을 지속한다. 한편, 한인연합회 차원에서의 피해 지원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맨하탄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과 개인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최했다. 이날 FEMA에서 10명의 스태프들이 참여해 재난피해 상담과 신청 접수 등을 도왔고 한인 봉사단체협의회 단체들에서도 함께 나와 피해자들을 도울 방법을 함께 의논하며 상담을 진행했다.

김대원 기자

인종과 교단 초월한 추수감사절 불우이웃돕기

백인, 흑인, 한인교회 하나되어 예수님의 사랑 실천



노숙자를 섬기는 사랑의 행사에 백인, 흑인, 한인교회가 힘을 모은다.

백인교회, 흑인교회, 한인교회가 힘을 모아 추수감사절 불우이웃돕기에 협력하고 있어 미국 수도 워싱턴 디씨 지역사회에 커다란 감동을 주고 있다. 백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매릴랜드 소재 '프로비던스 포트 워싱턴 연합감리교회(스테반 리케트 목사)', 흑인들로 구성된 디씨 소재 '3가 하나님의 교회(체릴 샌더스 목사)', 다인종 노숙자들과 마약중독자들로 구성된 평화나눔공동체교회(최상진 목사), 와싱턴인교회(김영봉 목사), 새미한장로교회(이주영 목사) 등이 연합으로 가족도 없이 추수감사절을 거리에서 지내야 하는 노숙자들 250여 명을 초청해 따뜻한 칠면조 음식을 대접한다. 행사는 오는 11월 15일(목)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3가 하나님의교회'에서다. 예배와 전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주소: 1204 Third Street, NW, Washington DC 20001) 워싱턴 디씨 하워드대학 신학대학원 교수이며 3가 하나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샌더스 목사는 "인종과 교단을 초월해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라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노숙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선교적 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추수감사절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푸드카드를 모아 나누어 주고 있는 와싱턴인교회 김영봉 목사는 "푸드카드는 가난한 이웃들이 원하는 음식과 생필품을 구입하도록 품목이 제한된 것"이라며, "교우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평화나눔공동체 조에스터 선교사는 "칠면조 혹은 겨울용품(장갑, 양말, 모자, 담요 등) 1구좌에 20달러 씩"이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수감사절 노숙자 돕기 운동 기금마련은 오는 11월 30일(금)에 마감한다. 참가자들은 수표에 "APPA-Thanks"라고 쓴 후 319 R St. NW, Washington, DC 20001로 보내면 된다. 후원문의: 703-973-2004(조미자 선교사), 703-625-1923(김재걸 권사), appachoi@gmail.com

조요한 기자

남부 기독교명문 에모리대, 매달 성폭행 사건 발생

2011년 한해만 12건 발생... 현재까지 18건 보고돼

미 남부 지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잘 알려진 에모리대학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의 여학생이 대학 캠퍼스 내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일은 최근 에모리대학교 내 7명의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발생했다. 이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교내 상담소에서 상담했지만 자신의 신원이나 가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이 여학생들은 올해 8월부터 10월 사이, 또 2011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모리대학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캠퍼스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성폭력 사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두려움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8건의 사고가 보고됐으며 12건이 2011년에 발생한 것이다. 에모리대학교는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로렌 번스타인 상담소장의 발언을 통해 "여학생 4명 중 1명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기숙사실, 클라룸 등 장소는 다양했으며 가해자는 대부분 지인 남성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김영신 기자

버지니아크리스천대, 고신대와 MOU 체결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 발전 도모”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와 고신대학교의 대표단이 참석해 MOU를 체결했다.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총장 이광현 목사, VACU)가 최근 한국 고신대학교(총장 김성수)와 MOU를 체결하고 세계 선교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0월 26일 고신대학교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 이광현 총장과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 이상규 부총장, 박신현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국제 컨퍼런스 공동 후원 ▲리서치 분야를 포함, 교수진 교류 ▲학점 교류 및 학생 교환제 ▲도서관 자료 및 자원 공유 등에 대해 조인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 이광현 총장은 “협력해서 공동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이제

우리 학교도 기초가 잘 닦여져 신뢰할 수 있는 교수진들도 늘어나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환 학생으로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에 오는 고신대 학생들은 원어민 영어 학습, 현지 유명 대학 탐방 및 미국 문화 역사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되며, 학교에서 세운 선교지 현장 체험 등을 하게 된다.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 학생들은 고신대 전자도서관의 약 50만권의 전자책을 공유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월 14일에는 대전신학대학교(총장 황순환)와도 MOU를 체결한 버지니아크리스천대학교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넓혀가며, 선교 확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www.vcuni.org

권나라 기자

김종훈 회장 “열린 귀로 겸손히 섬길 것”

탄원에 대한 건설적 마무리 시사 “하나님 기뻐되는 교협”

9일 제39회기 시무예배와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김종훈 목사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뉴욕교협에 대한 조언들에 대해 “마음에 담겠다”고 말하는 한편, “열린 귀를 갖고 겸손히 섬기며 이루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임원구성과 관련해 특정한 사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던 일부 회원의 탄원을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39회기가 화해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게 된 데 책임감과 함께 감사를 느낀다고 밝히면서 특히 지금까지의 여러 권면들에 대해 “여러가지로 교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권면을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 모두 교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김 목사는 이 권면들에 대해 “열린 귀를 가지고 제 마음에 권면을 담고 그 말씀을 제 회기 동안 겸손히 섬기면서 이루기를 다시 결심했다”고 밝혀 포용의 한 회기를 이끌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김 목사는 39회기의 구성에 대해 “38회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뉴욕교계에 화합의 물꼬를 트셨고 39회기를 이어받게 하셨다”며 “할 수 있다면 그동안 함께 참여 못한 분들도 같이 참여해 39회기를 섬기고자 부탁을 드렸고 너무 감사히도 모두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고 화합의 회기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음을 강조했다.

39회기의 목표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협”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주님은 대단히 위대한 일들을 하셨지만 사역은 단순하셨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면 어떤 여러

움이 있더라도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사역에 목표를 갖고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목사는 앞서 밝힌 바 있는 목회자 초청 창조과학회 시설 방문 계획과 뉴욕교협의 주요 사업들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문제에 신경쓰겠다고 밝힌 부분도 주목된다.

김 목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수한 신앙, 기도의 열정, 성령의 감화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교협 산하에 청소년 센터를 주셨는데 이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또 뉴욕 안에 있는 많은 청소년 기관과 함께 저들의 학원사역, 마약, 가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교협 산하 교회들이 교회 안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 윤리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기도 없이는 되지 못한다. 기도의 바람을 함께 일으키고 싶다. 모두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9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뉴욕교협 회장

김대원 기자

메릴랜드, 메인, 워싱턴 주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자들은 미국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아이오와, 버몬트, 뉴햄프셔, 뉴욕 주와 워싱턴 DC 외에 메릴랜드와 메인, 워싱턴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주는 모두 10개 주로 늘어났다.

이번 선거에서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워싱턴 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동성결혼 주민 찬반투표를 통해 메릴랜드 주(찬성 52%, 반대 48%)와 메인 주(찬성 53% 반대 47%), 워싱턴 주(찬성 52%, 반대 48%)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승인됐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찬성 48%, 반대 51%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무산됐다.

메릴랜드와 메인, 워싱턴 주의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는 의회의 결정이 아닌 주민 투표에서 통과됐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메릴랜드 주에서는 1998년 이후 30회 이상 주민투표에 붙여진 동성결혼이 한번도 ‘찬성’으로 결론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번 선거를 통해 미국 국민들 가운데 동성결혼의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이 증명됐다.

메인 주와 워싱턴 주에서는 오는 12월 7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 증명서가 발급된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법상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1996년 미국 연방 의회가 ‘결혼보호법(DOMA)’을 통과시켜 결혼은 ‘이성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기 때문. 그러나 워싱턴 DC를 포함 7개 주에서 동성결혼 제도를 주 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 12개 주에서 시민 결함이나 파트너 등록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동성애자 상원의원도 탄생했다. 하원의원을 7차례 지낸 테미 볼드윈(민주당)이 위스콘신 주 선거에서 공화당의 타미 톨슨 전 주지사를 누르고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볼드윈은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브라이언 김 기자

O.C./앨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2부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12:00 오전6:00(토)
AWANA 오후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8:00(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 (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 나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김한오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온전케 된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6: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회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r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부예배 오후 6:0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랑을 뜨겁게사랑하며 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9:45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술)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랑,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안전한 인터넷 쇼핑몰 www.KBSmall.com

가을 햇 산삼

추수감사 특별 보은 감사세일

항상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추수감사절은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수 감사 특별 보은 감사 세일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3차 파괴 가격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1,700	\$1,200/LB
		2호:15-22그램	\$1,200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1,100	\$900/LB
		4호:5-8그램	\$ 900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 600	\$4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1월 5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중전무게
\$600	270그램	약 30 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200그램	약 20~30 뿌리	평균 20-30년근	70그램

\$200 산삼은 200그램부터 130그램, 110그램, 90그램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연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산삼의 가격 ^{3차} 파괴, 산삼의 대중화 선언을 주도한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찌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70그램~~ 13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20~30뿌리



\$600
소매가 ~~\$3,00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11월 30일까지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50불/ea + tax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100% 환불 보장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tax
or 오리지널8병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BOOK

신간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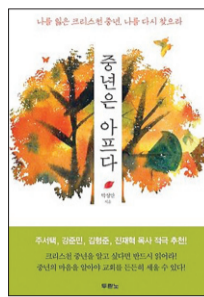
통

책으로 새로운 통하는 세상

중년은 아프다

박성만 | 두란노 |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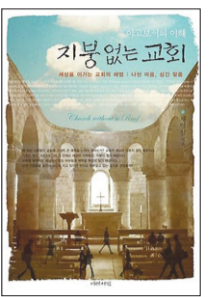
크리스천 중년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안내서가 부족한 상황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는 수많은 중년들을 직접 상담하고 치유한 경험으로 책을 썼다. 크리스천 중년은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목회자는 중년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붕 없는 교회

채영삼 | 이레서원 | 3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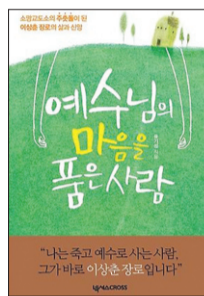
교회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아 추하게 늘어져 있는 영적 근육에 새로운 원기를 불어넣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가득한 책이다. 따뜻한 제사장적 감수성과 권위 있는 선지자적 직함이 담긴 묵상과 통찰은 값싼 은혜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교계의 알팍한 영적 신경증을 시술하기에 충분한 예리함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유기성 | 넥서스CROSS | 192쪽

이상춘 장로의 일대기를 유기성 목사가 정리한 책이다. 이상춘 장로는 교도관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평생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소자들을 사랑하고 돌봤다. 그의 재소자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소망교도소의 주춧돌이 됐다.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

이성혜 | 마음과생각 | 232쪽

2011년도 미스코리아인 이성혜, 그녀가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자존감 회복의 과정. 헌신된 크리스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지독한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자존감을 갖지 못했기에 방향할 수밖에 없었던 지은이가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후에 찾게 된 인생의 아름다운 진로에 대해 이야기한다.



기도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 담은 책

에릭 알렉산더 목사의 <참된 기도>

기도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담은 스코틀랜드 출신 에릭 알렉산더 목사의 <참된 기도(생명의말씀사)>가 출간됐다.

저자는 책을 통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뤄져야 할 근본 사역이지, 보조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 존 칼빈의 이사야서 주석 중 한 부분을 빌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흔히 △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변명하는 빌미나 △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으로, △ 또는 우리가 배운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

거나 △ '거룩한 장소'에서나 하는 영적 엘리트들의 전유물 등으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시작에는 경배와 찬미가 있었고, 찬양은 그 본질에 속했다. 기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선편하는 것을,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

고, 그 자체가 은혜의 증거에 해당하며, 은혜의 수단이 된다.

저자는 "기도는 기독교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 보조적인 보완 요소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근본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도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또 다른 단어는 '믿음'이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우주의 주권자로 받아들여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도록 만들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게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에서는 '기도 생활'을 분리하기 힘들다.

우리 삶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듯, 우리 기도의 모델도 '예수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이다. 저자는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에서 그 모범을 찾고 있다.

태도로는 진실성과 은밀함, 단순함

을 갖춰야 하고, 내용으로는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 뜻이 이뤄지기를, 우리의 물질적·영적 필요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세 가지 명령을 따른다면 받게 되고, 찾아낼 것이고,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자는 이밖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실텐데 왜 구하라고 강요하시는가?',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등의 신학적 문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가?', '같은 기도를 반복해도 되는가?' 같은 영적 문제, 기도시간 할애 같은 실천적 문제 등에도 대답하고 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기도



에릭 알렉산더 | 조계광 옮김 생명의말씀사 | 176쪽

와 설교는 서로 단편을 이루며, 기도는 설교의 필수 요소"라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권했다. 이 책 표지 그림은 미카엘 스페르츠의 작품 <참회하는 베드로>라고 한다. 이대웅 기자

거룩한 발걸음 "Travel of Life" 성지순례

성지순례란, 단순한 관광적 차원을 넘어 순례하며 예배하며 말씀의 현장을 찾아가는 행복하고도 거룩한 여행입니다

"Travel of Life" 2013년 성지순례 계획

- 출애굽 순례
 - 1월 29일 출발 -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290
 - 2월 19일 출발 - 이집트(룩소), 이스라엘, 요르단 11일 \$ 2,590
 - 3월 11일 출발 -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12일 \$ 2,890
 - 4월 2일 출발 - 이스라엘, 요르단 9일 \$ 2,490
- 사도바울 전도여행 순례
 - 3월 12일 출발 - 터키 8일 \$ 1,590
 - 4월 8일 출발 - 터키, 그리스, 로마 10일 \$ 2,490

** LAX 공항 출발 기준이며 타주 출발을 원하시면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최소 출발 기준 15명입니다
** 위의 날짜는 모두 100% 출발 확정된 것입니다

"Travel of Life" BIBLE FIELD STUDY

-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와 협력하여 진행
- 성경의 중심무대인 이스라엘을 성서 지리학적인 순례를 통하여 깊이있게 공부하는 교육 프로그램
- 3월 1일 (마감) / 3월 11일 (신청가능) / 4월 1일 (신청가능)

목회자 안식년 PROGRAM

- 종교 개혁지 탐방
종교개혁지를 방문하여 개혁신앙의 현장을 체험하고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영적 계기를 마련코자 준비한 일정
- 회복 여행 (Retreat Tour)
사역에 지친 몸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회복시키는 일정

문의 : TRAVEL OF LIFE - BLISS & GANA 714.681.6356

Los Angeles Office, 893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E-MAIL : traveloflife1@gmail.com

“그냥 기도만 하렵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전선을 구축하고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적진에 보내서 스스로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먼저 마온 족속을 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서로 싸우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뒤늦게 도착해 보니 적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데에만 장장 사흘이 걸렸습니다(대하 20:21-25). 기도가 전략이요, 전력이요, 전쟁이요, 승리였습니다.

R. W. 베케트 주식회사의 존 베케트 사장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랍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의 주저용 오일버너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경쟁업체들은 서둘러서 매출 목표를 낮추고 종업원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 모임을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석유 수출금지가 곧 해제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경쟁업체들과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북미 지역 최고의 주저용 오일버너 생산업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원리를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하되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름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올해도 대부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래 저래 시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기도만 하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인수 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전 총장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이 돌아 왔다. 추수감사절에는 의례 최초의 추수감사절 이야기가 회자(膾炙)된다. 1620년 9월, 102명의 승객을 태운 메이플라워 호가 영국의 작은 항구 플리머스(Plymouth)에서 출항하였다.

메이플라워 호는 불행히도 폭풍을 만나 거의 한 달을 항방 없이 헤매다, 그 해 성탄절을 며칠 앞둔, 12월 21일 이름 없는 작은 해안에 닿을 내렸다. 이 곳 이름을 자기들이 출항한 영국의 플리머스 항의 이름을 따 플리머스라 명명하였다. 대체로 미국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사는 그보다 반 세 대 전인 16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607년, 오늘의 버지니아에 최초의 영국 이민자들이 도착하여, 영국 왕 제임스의 이름을 딴 '제임스타운'이라는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정착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가 어찌 영국인들의 신대륙 도착과 개척에서 시작했으랴.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건너오기 수천년 전 신석기 말기 이전부터 이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고이 간직하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는 모름지기 아메리칸 인디언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금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필자는 신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 35명의 청교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한다.

메이플라워 호에 탑승한 성인 남자들이 신대륙을 눈앞에 두고, 협약을 하나 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 협약'(Mayflower Compact)이다. 왕이 지배하던 영국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론 통치자가 없었다. 영국에는 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와 왕족, 성직자, 귀족, 평민, 하층민이라는 사회적 신분 계급이 있었으나 신대륙에는 왕도 귀족도, 그 어떤 지배체제도 사회 계급도 없었다. 따라서 새로 건설될 이민 사회를 이끌고 갈 지도체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이 협약을 맺

메이플라워 협약

었는데, 이것이 미국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모태이다.

이 협약의 내용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혁명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주민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지도자'(leader)라는 말은 지배자(ruler)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생소하고 낯선 단어였다. 인류는 그때까지 지도자가 없었고, 오직 지배자만 있었을 뿐이었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은 인류 공통의 지배 형태였다. 왕이 지배하고, 그가 죽으면 세자가 그 뒤를 이어 왕권을 받아 통치하는 것이 이전 시대의 통치 체제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지도하는 자를, 그리고 그 권력을 세습하는 게 아니고 선출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이들은 존 커버(John Corver)를 그들의 지도자(총독)로 선출하였다.

선출하는 정치체제,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정체를 채택하는 나라의 헌법 1조가 바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말 한마디를 쟁취하기 위해 인류는 긴 세월을 하염없이 기다렸고, 헤아릴 수 없는 투사들이 피를 흘려야만 했다.

또한 이 협정에서 선출된 자의 공직 책임 기간은 일정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주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라도 종신토록 재임할 수는 없었다. 왕은 임기가 없고 죽을 때까지 집권한다. 그러나 선출직은 일정 기간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다. 메이플라워 협정에는 기간(term)을 두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주민들에 의해 다시 그 책임 여부를 묻거나 새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이다. 그 누구도 한번 선출되었다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 기간이 길 수는 있어도 종신일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 하원의원이 2년, 그리고 상원의원은 6년으로 못박혀 있다. 대통령은 두 팀 이상 할 수 없다는 불문율도 있다. 메이플라워 협정에서 비롯된 미국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에 길

이 남을 정치 체제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역사의 역설이 있다. 청교도들은 영국이 자국민들에게 영국교회(성공회)를 강요하고, 국교회를 믿지 않은 주민들을 박해하는 와중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진출했다. 즉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찾아 죽음을 감내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이룬 후부터, 그들의 주 거류지였던 메세추세츠 주에 청교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거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였다.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 없고, 침례교도나 웨이커 같은 소종파들의 신앙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내어 놓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로드 아일랜드나, 펜실베이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청교도들은 분명히 신대륙에 자기들의 신앙에 따라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성한 사회를 건설하려 분투했지만, 타 종파에는 이런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비로소 "각인은 각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신앙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확보된다"라고 규정했다. 인간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투쟁한 또 다른 역사의 단면을 보여 준 사례이다.

다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청교도들이 최초의 감사절에 행한 일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죽을 같은 첫 해 겨울을 나는 동안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거처할 텐트를 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같이 음식을 나누고, 운동경기를 하면서 친교를 나누었다.

이 일은 종족, 피부색, 언어, 문화, 성별, 전통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나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갖는다는 위대한 정신의 발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를 할 때는 내가 사는 세상이 차별 없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이다. 우리 모두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여 진정한 감사절을 맞이할 때를 기대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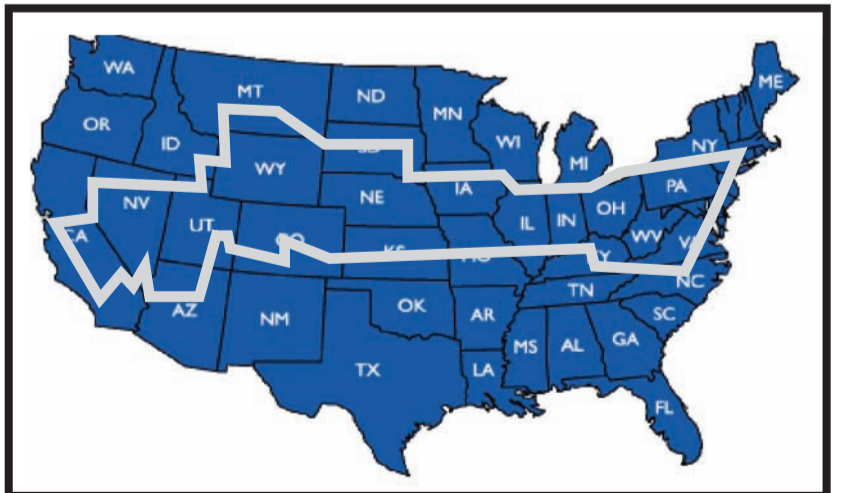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맹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팩스: (213) 402-5136 /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여호수아 미국대륙횡단선교회

본 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대한민국 2세들에게 여름방학(30일) 겨울방학(10일) 동안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신비로운 자연과 유명 관광지, 유적지, 선교지를 답사하고 동부 IVY 리그 대학들을 탐방하여 큰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하며 영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랑, 섬김, 협력, 리더십을 키우며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비 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본 선교회에 뜻을 같이하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25국립공원, 30개주, 40명소, 1만 마일, 5개 IVY리그 대학

LA-> 요세미티 NP-> 타호호수-> 슬랙시티(소금호수)-> 엘로스톤 NP-> 러쉬모어 NM(대통령 큰바위얼굴) 시카고(시어즈타워,오대호)-> 클리블랜드-> 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턴(하버드대학교, MIT 공과대학교)-> 뉴헤이븐(예일대학교)-> 뉴욕(맨하탄, 자유여신상, 엠파이어빌딩, NYU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워싱턴 D.C (백악관, 국회의사당)-> ST. Louis-> 덴버(로키마운티 NP, 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파이크스 피크, 로얄고지 다리)-> 블레이크턴 NP-> 아쉬 NP-> 케넬랜드 NP->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 파월호수 NP(8시간 유람선)-> 그랜드 캐년 NP-> BRYCE캐년 NP-> Zion 캐년 NP-> 라스베가스-> LA

대표 : 최영봉 목사

1134 S Western Ave #A-5 LA CA 90006
Tel. 213-271-5034

축복의 자석 “감사 한 마디”

감사는 자석처럼 축복을 끌어 당깁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을 끌어 당기듯이 감사는 행복을 끌어 당깁니다. 이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한해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 물질로 감사, 몸으로 특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감사는 전염병과 같아서 옮겨 다닙니다.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친구가 감사하고 친구가 감사하면 공동체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감사하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불감증에 걸려 있는 듯합니다. 감사를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 버렸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우리가 아프면 밥맛을 잃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돌같이 씹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만 나옵니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영적 병에 걸린 사람은 감사의 맛을 모릅니다. 그 삶에서 감사가 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중단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에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자기에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덧붙이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칼 힐

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적용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감사하세요. 별일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4:2)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5:20)

감사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실행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회사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사는 가정입니까? 건강한 부부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고백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사소한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나 서나 감사

때때로 배가 고플 때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 생각이 간절하다. 건강이 안 좋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다니지 못할 때 옛 시절이 더 그립다. 삶의 여유가 없을 때 고향의 친구들이 보고 싶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남들이 부러워 하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웬 불만이 그렇게도 많고 얼굴을 찡푸리고 살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느 부자 아버지는 많은 토지가 있고 또한 일꾼들도 많이 있었다. 아버지는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고 따라서 아들들도 왕자의 대접을 받는다. 큰 아들은 부모를 도우며 동생의 친구가 되어 준다. 둘째 아들은 이 집에서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지만 불만과 원망이 제일 많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대접만 받고 자랐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는 결국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즐기다 보니 있던 돈은 다 떨어지고 왕겨지가 되었다. 결국 돼지 사육장에 가서 돼지와 같이 돼지 먹이를 먹는데 그것마저 실컷 먹지 못하게 되었다.

어느날 밤 달과 별을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한다. “내 아버지에게는 많은 곡식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대접을 받은 것은 부자 아버지의 덕 때문이었지 그 그늘을 벗어나니 아무 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옛 어른들의 말에 ‘가난한 집에서 효자가 나온다’는 말이 맞다. 그는 기로에 섰다. 그곳에서 그렇게 죽느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는 후자를 택한다. 이제는 아들이 아닌 한 사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리라고 하고 집으로 되돌아간다. 당당한 왕자의 자세가 아닌 초라한 한 일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산천은 그

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계곡에 흐르는 물 소리는 천사의 노래처럼 들렸다. 그에게는 살아있는 그 자체로 감사한 것이다.

오늘날 뜻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또는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 방학 때 아프리카의 빈민촌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보낸다. 이를 통해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내가 아는 한 유대인은 억만 장자지만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과 쓰는 법을 가르친다. 학생인 외아들에게 주말에는 주유소에서 최저 임금을 받으며 늦도록 일하게 하고 방학 때는 노동판을 보내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체험하게 한다. 그런 훈련을 마친 후에 큰 일을 맡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계속 따라온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따라오고 또 한 주위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준다. 가능한 한 감사하며 살자.

이름 없는 성도들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교회에는 무명의 성도들이 있다. 두드러지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 하는 이들이 있다.

어떤 분들은 매주 토요일 빠짐 없이 나와 흠레스들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동네 저 동네 찾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 묵묵히 그야말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다. 교회는 목회자도 필요하고 평신도 리더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가장 소중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다. 목회자나 리더가 아무리 앞서 나간들 이런 무명의 성도들이 묵묵히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35년의 역사 속에도 이런 이름없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구비구비 어려웠다. 자기 집은 다 챙기지 못하면서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먼저 교회로 달려와 이 구석 저 구석 살펴주던 일꾼들이 있었고 누군가 어려움에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지체없이 달려와 저들을 위로하고 돕던 성도들이 있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한 푼을 아끼면서도 교회가 필요한 일에는 아낌없이 거금을 헌금하던 그런 일꾼들도 있었다. 고맙기 이를 데 없는 분들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소리 없이 이름 없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웬만해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섬긴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그 선행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없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무명용사들의 충성을 결코 잊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늘 그들 앞에 감사하고 또 축복해야겠다.

우리 교회 35년의 역사 가운데 과거에 또 현재에 이름 없이 헌신하시는 무명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축복한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원장 류재규
경산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물 2층) LA, CA 90006

HEALTH & LIFE

참기 힘든 두통!

‘뇌 혈액순환 장애’가 문제였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생기는 두통, 한번 생기면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거나 평소시에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통은 정말 ‘골치아픈’ 존재다. 머리의 통증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업무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만성두통 환자들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만성두통을 유발하는 ‘뇌 혈액순환 장애’는 위장장애나 간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신체불균형, 순환기 장애, 스트레스, 근골격계 이상 등 원인이 다양하다. 또한, 음주나 약물 오남용 등으로 간의 해독기능이 저하되면 열이 쌓여 머리로 올라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만성피로,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예민함 등 동반할 수 있어**

만성두통 환자는 만성피로를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생각이 잘 안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동반하며 간혹 구역감

이나 얼굴이 검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혈액순환 장애를 장기간 방치하면 두통의 원인이었던 위장장애 등을 더욱 심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유발되며 뇌졸중의 위험도 높게 된다.

만성두통 환자 중에는 통증에 민감한 여성이 많으나 심한 스트레스, 잦은 술자리로 위장, 간 기능이 약해진 직장인,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해 근골격계 이상이 생긴 사무직 종사자,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 등에서도 호발하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경산한의원의 류재규 원장은 “수험생, 직장인들에게 두통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큰 장애가 된다”며 “업무능력 향상이나 학습장애 등을 바로잡기 위해선 두통 치료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두통 치료의 핵심은 머릿속 탁한 피 즉, 어혈 치료에 있다”며 “어혈을 치료하는 원리는 배수구의 찌꺼기를 청소하듯, 머릿속 혈관에 쌓인 탁한 피를 청소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통증 해결 후 원인요소

완전히 없애줘야 재발 막아

치료 방법으로는 우선 머리에 쌓인 열과 탁해진 혈액을 풀어주는 약제인 ‘황금’, ‘강황’ 등을 이용한 ‘뇌청혈해독탕’ 치료와 함께 뇌압을 조절하는 침 요법, 탁한 피를 청소하고 뽑아내는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1~3개월 이내에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 통증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통증이 해결되었다고 두통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

만성두통은 대부분 수년간, 혹은 수십년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아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주거나 두통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 및 대사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류재규 원장은 “두통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와 함께 두통으로 인해 유발된 각종 신체 불균형을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나 기자

미셸의 요리이야기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와 함께 먹는 과일 스터핑

온 가족이 오손도손 “우리 입맛에 딱”



바야흐로 ‘칠면조의 날’ 추수감사절이 다가왔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영국 청교도들이 이듬해 11월 추수를 마치고 3일간 축제를 연 데서 유래한다.

이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경작법을 가르쳐 준 인디언들을 초대에 야생 칠면조를 잡아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고, 이후 칠면조 요리는 매년 추수감사절 식탁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됐다.

칠면조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요즘 같은 웰빙 트렌드에 딱 맞는, 몸에 좋은 육류다. 고단백, 저칼로리 육류로 분류돼 있는 칠면조는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건강을 위한 종합비타민’으로 불리우고 있을 만큼 건

강한 먹거리 중 하나다. 미 영양 전문가 스티븐 프렛 박사가 선정한 14가지 ‘수퍼 푸드’의 대부분은 견과류, 채소, 생선과 유제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육류로는 유일하게 칠면조가 언급돼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딱딱하고 맛이 없다는 이유와 식문화의 차이로 한 인들에게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추수감사절에도 칠면조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기왕에 먹는 칠면조, 우리 입맛에 맞는 요리법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스(Yes)다. 바로 달콤한 과일 스터핑(Stuffing)과 함께라면 우리 입맛에 ‘딱’이다. 스터핑이란, 닭이나 터키를 통째로 구울 때 배 속에 집어 넣는 소를

일컫는 말이다. 황금빛으로 잘 구워진 칠면조 요리에 그레이비 소스를 얹어 과일 스터핑과 함께 먹으면 그 맛이 환상적이다. 신선한 허브를 얹어 함께 파삭하게 구워내면 향긋한 허브향까지 더해 색다른 만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와 함께 곁들여 먹을 만한 맛있는 과일 스터핑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다음은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요리연구가 미셸 조 씨가 소개하는 레시피다.

맛있는 재료

- 버터 Butter 4큰술
- 샐러리 Celery 1개
- 파 Chopper Green Onion 반컵
- 크랜베리 Dried Cranberry ¼컵

- 말린 과일 Dried Fruits ¼컵
- 밤 Chestnut ¼컵
- 견과류 Dried Nut ¼컵
- 로즈마리 Chopped Rosemary ... 1큰술
- 세이지 Chopped Sage ... 1큰술
- 파슬리 Chopped Parsley ¼컵
- 이탈리안 빵 Italian Bread ... 한덩이
- 치킨 브로스 Chicken Broth ... 3컵
- 소금·후추 Salt & Pepper ... 각1작은술

만들기

- 1.오븐을 일단 400도로 예열해 놓고 준비한 빵은 손을 이용해 잘게 잘라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 놓는다.
- 2.분량의 샐러리와 사과, 파는 깨끗이 씻어 작둑철기로 잘게 썰어 놓고 나머지 로즈마리, 세이지, 파슬리도 총총 썰어 준비한다.

3.달구어진 팬에 분량의 버터를 넣고 녹인 후 먼저 잘게 썰어 놓은 사과와 파를 넣고 향이 나도록 볶는다.

4.어느 정도 볶아졌다 싶으면 말린 과일과 말린 크랜베리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 준다.

5.불을 끄고 준비해 놓은 프레쉬 허브를 넣은 후 섞는다.

6.오븐용 용기에 볶은 모든 재료를 넣은 다음 미리 오븐에 구워 놓은 빵을 같이 넣어 섞는다.

7.그 위에 분량의 치킨 브로스를 넣고 잘 섞어 준 다음 소금과 후추를 넣으면서 간을 맞춘다.

8.완성된 스터핑을 40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고 20~30분 정도 구워 완성한다.

<도움말: 요리연구가 미셸 조>
쿠킹클래스 문의: (562) 896-3090

COVER STORY



싱글 여성 크리스천들의 실제적 고민 '터치'

기자 출신의 이애경 작가는 조용필과 윤하의 노랫말을 작사했고, 30대 여성들을 위한 〈그냥 눈물이 나(시공사)〉를 썼으며, 글을 통한 내적 치유와 회복 사업, 강연을 통한 크리스천 싱글남녀의 코칭에 힘쓰고 있다.

교회 女 청년들의 절규...

“하나님, 기다리다 죽겠어요”

‘독신의 은사’가 없는 크리스천 청년들이라면, 결혼은 그들에게 있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일 것이다. 결혼은 리필도 리콜도 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적령기 청년들 대부분의 기도제목 상위권에는 ‘배우자’가 포진하고 있고, 거기엔 ‘신앙 좋은’이라는 수식어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특히 여성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신 듯한 결혼의 주인공 리브거나 7년에 7년을 더하면서까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을 꿈꾸는 그녀들이지만,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교회가 많아 ‘선택지’ 자체가 풍성치 못하다. 더구나 이리저리러한 고민을 털어놓을 곳마저 마땅치 않다.

남 모를 고민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에서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기간은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눈을 낮춰야 한다’, ‘기도만 하지 말고 선을 보라’는 등 온갖 소리가 들려온다. 이쯤 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비기독교 형제와 사귀어 볼까’, ‘남자 많은 교회로 옮겨볼까’, ‘기도원 가서 금식이라도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한다.

이러한 고민으로 머리를 싸매 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기다리고 있는 골드미스 여성 작가 이애경 씨가 같은 처지(?)의 크리스천 ‘솔로’ 여성들을 위한 처방전 〈기다리다 죽겠어요(터치북스)〉를 펴냈다.

고담준론에 점잔 빼는 이야기는 모두 제하고, 뺏 속 깊이 체험한 ‘언니’의 과감하고도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에 크리스천 싱글녀들이 열광하고 있다.

“교회를 아마조네스 왕국으로까지 표현했는데, 교회 내 성비(性比)가 그 정도인가요.”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 싱글 여성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높고 그 퍼센트마저도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골드미스’라 포장하지만, 사회에서 30대 여성 중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 20만명이라는 뉴스를 봤어요.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교회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불합리적 구조입니다.”

여성들 지위가 예전보다 높아졌다 보니 눈이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지요. 여성들이 앞서간 만큼, 남성들이 받쳐주고 따라 올라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3대 7이나 2대 8 정도로 여성 청년들이 월등히 많습니. 제 주변에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2대 8이라면, 한 명을 놓고 네 명이 싸워야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이들은 너무 잘 알아서 이성(異性)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사이에 연결되는 컨퍼런스나 미혼 남녀간 만남의 장도 적습니.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그러한 자녀들을 낳아서 신앙을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텐데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매들이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힘들어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질 못하고 계시요. 자매들의 경우 이런 고민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직접 하셨던 고민과 체험이 담겨있고, 같은 입장에서 전하시니 책 이야기들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여성분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최고의 배우자를 주신다는 확고한 생각입니다. 분명 있을텐데, 최고의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겠지요. 하나님은 분명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일단 외모에 ‘필(feel)’이 통해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눈을 낮추라’는 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깔으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재력이나 조건, 외모나 학벌 등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외모를 떠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물 같은 사람을 감추 놓으셨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자, 하나님의 눈높이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하면서 갈등하는데, 대부분 기독교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누군가를 지정해 주길은 연 중에 바라고 있기도 하는 것 같고요.”

“정말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하셨다’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주변에 많아요(웃음). 혹시 모르니 기도해 보라고 권유했지만, 그런 경우 들질 않

지요.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남자를 하나님께서 배우자감으로 점 찍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결혼할 때가 된 남녀가 둘이 만나 서로 좋아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감정이나 타이밍이 딱 맞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 그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의 확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변에 기도도 부탁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께 조언을 듣는 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확신이나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닐까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참 많이 고민했어요(웃음).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하느냐 마느냐는 저희에게 달린 거겠지요. 그러나 행여 우리가 중심이 아닌 외모를 보다 서로를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가 선택할 다른 사람들을 완벽한 계획 안에 커플로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다했다는 말이 아니라, 평생 택하지 못했지만 다른 평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지로 ‘플랜 B’를 택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은혜로 덮으시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기다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도

축복해 주셨듯이 말이에요.”

“골드미스로서 자신의 이야기길 수 있는 이런 책을 쓴다는 일이 사실 쉽지 않았을텐데요.”

“제게도 굉장한 돌파였어요. 어느 날, 결혼한 이는 후배의 ‘내년 소원이 단 한 시간만 내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얘길 들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동안 결혼하지 못한 것에 집중해 부정적이고 어두운 쪽만 생각했는데, 이 말에 티끌에서 빠져 나왔죠. ‘아,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소중한 싱글 라이프를 갖고 있구나’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일단 시간이 많고 사람을 만나거나 여행을 가고 글을 쓸 수 있었구나, 이렇게 빛을 보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

그리고 저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생각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 여성들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존재만으로 큰 위로를 얻곤 해요. 제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웃음). 하지만 겪어보니 이렇게 하면 덜 힘들더라, 하면서 서로 세워가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동안, 하나님도 그 의심을 견뎌가고 계신다”는 그 분들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를 기다리는데 이뤄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이대용 기자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 Fax, (213) 402-5136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주시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 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태양광 에너지 전문 Tree Solar Inc

솔라 전기 컨설팅 회사

태양에너지 교육

James Han 310.991.2135
905 Diamond Ave, #9 South Pasadena, CA 91030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부/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Wirkstoff를 함유하여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생활개선을 위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만디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문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제작(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식은 살리니! 자동차 엔진 커버 \$3000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외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예수의 영성으로 교회 생명력 이어간다

100주년 맞은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오경환 목사 인터뷰

샌퍼난도밸리에 위치한 밴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얼마 전 성대히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1911년 30여명의 감리교 성도들에 의해 설립돼, 1912년 연회로부터 감리교회로 승인받고 C.C. Harzler 목사가 초대 목사로 파송됐다. 백인교회인 이 교회에 한인회중이 들어선 것은 올해로 26년째로 이제는 두 회중이 하나가 됐다.

100년의 전통과 유서를 가진 교회의 담임 오경환 목사는 “지난 100년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며,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가 또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주일 한국학교에서는 미국인 교우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무료 음악학교를 개설해 기타, 키보드, 드럼을 가르치고, 재봉학교에서 재봉, 뜨개질, 수선을 가르치면서 봉사에 열심을 내고 있다. 미국인과 한국인을 동시에 목회하고 있는 오경환 목사를 만나 교단과 교회와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경환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는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M.Div.를 졸업했다. 현재 미국연합감리교회의 정회원 목사로, 교단 안수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코커스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감리교회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옥스퍼드대학교에 다니던 젊은이들이 지적,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1729년부터 모인 모임이 있었다. 신앙적 책임을 지키는 방식과 행동지침이 매우 조직적이고, 그 방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에서 ‘Methodist’라고 사람들이 부른 데서 기원한다.

연합감리교회의 ‘연합(United)’이란 단어는 1968년에 감리교회와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가 합치면서 추가됐다. 최초의 교회는 1766년에 설립됐으므로 역사는 약 246년이 됐다.

-연합감리교회를 소개한다면.

연합감리교회는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를 파송한 교단이다. 아펜젤러 목사는

1885년 조선에 선교사로 입국해서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고 내리교회 창립을 주도해 배재학당을 설립했다.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동기도 어쩌면 배재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감리교회는 한국감리교회의 모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남가주에 43개의 교회가 있고, 전국적으로 약 300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미국 내 전체 감리교인은 약 8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미국 내 주요 교단 중에 세 번째로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는 59개의 연회가 있고, 50명의 감독이 있다.

이번에 남가주에 새로 미네르바 칼케노 감독이 왔다. 히스패닉계 2세 여성감독이다. 두 번 연속 여성감독을 모시게 됐다.

연합감리교회는 남녀평등이 다른 어떤 교단보다 탁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목회자들이 전체 목회자 1/3이 되고,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성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연합감리교회를 추천하고 싶다. 지금 남가주에서 영어권을 목회하는 한인 목회자들 중 2/3가 여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교회가 창립된지 100년이 됐다. 백인교회와 합병한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100주년이 넘는 교회가 많다. 동부에 가보면 200년된 교회도 많이 있다. 200주년 축하예배를 드립니다라는 공고가 뜨기도 한다. 연합감리교 안에 100주년된 교회가 많다. 순수하게 한인교회로서 100년이 넘는 교회는 LA연합감리교회가 있다. 최초의 한인 연합감리교회인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110년이 넘었을 것이다.

한인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지는 26년이 됐다. 미국회중과 통합은 2005년에 했다. 이곳 지역 커뮤니티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원래 백인들이 많았는데 히스패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백인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이주했다. 그러면서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백인들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면서 커뮤니티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됐다. 지금은 이 지역 구성원 90%가 히스패닉이다. 26년 전에 온 한인 회중들은 큰 변화 없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 백인들 중 나이 드신 분들 20여명

과 영어권 20여명이 있다. 매주 출석이 40-45명 정도 된다. 피부색은 다르더라도 같은 연합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이 교회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인 목회자가 담임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한인들이 이끌게 된 것이다.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되면서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가 됐다. 연합감리교회에서의 통합은 두 교회가 한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One Church Two Congregations가 되었다고 한다. 한 교회에서 두가지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다. 교회 주인이 한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한인교회가 모든 행정과 재정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을 뿐이다.

-부임한 지는 얼마나 됐나?

2년 반이 됐다. 그 전에 라팔마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목회를 했다. 그곳도 합병한 교회였다.

-연합감리교는 담임 목회자를 파송하는 제도인데, 파송은 어떻게 이뤄지나.

감독의 권한으로 파송된다. 연합감리교 목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회원 목사가 되면 감독의 파송제도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전에 라팔마연합감리교회에서 11년 있었다. 보통 미국 목회자는 4년에서 7년에 한번씩 옮긴다. 한국 목회자들은 안 옮기고 싶어 하는데 라팔마에서 갑자기 이곳으로 오게 됐다. 이 교회가 가진 특성은 미국교회까지 담임해야 하는 것이었다.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실정이다. 한국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유럽교회나 미국교회를 닫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차세대들이 목회와 신학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사역자를 뽑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다. 청년사역자가 1.5세나 2세라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구인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많은 분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걱정하고 있다. 교회 세속화는 설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예배 요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오경환 목사

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다. 설교는 인성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나 영성이 빠진다면 결국 세속화되는 것이다. 세상에 유익한 강연이 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는 영적 목마름 때문이다. 강단에서의 메시지가 과연 그 영혼을 충족시켜주었는가? 메시지가 미묘해서 단지 듣기 좋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교회를 잘 나가다가 회의를 느끼고 이것이 쌓여져서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속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대형교회라 해서 영성이 있는 교회인가. 그것은 아니다. 듣기 좋은 말로 혹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혹은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대형교회를 보면 한 주에 수십명씩 들어오고 수십명씩 빠진다. 의명의 성도들은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 교회 토박이들 때문이다. 그들이 열심히 참석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5%의 구성원이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기득권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 속에서 영성을 취해 이 땅에서 살도록 할까”라는 물음이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까지 한다. “더 이상 은사 시대는 끝났다. 옛날이나 방언했지.

신유나 성령은사는 다 끝난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말씀의 시대라고 말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은 신비스러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를 보는 것인데 성경은 사를 부정한다면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언, 방언, 신유의 은사가 각 교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부흥할 것이다.

-감리교회 예배 분위기를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하면 진보적이고 학구적이라고 한다.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 인정하는 남가주 내의 신학교는 클레어몬트신학교와 풀러신학교다. 그런 학구적 신학의 사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단의 근본 뿌리인 요한 웨슬리 목사는 영성운동가였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곤 했다.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었던 분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인가부터 많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학구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사조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미국 신학의 영향이 한국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우리는 웨슬리 목사의 영성적 신앙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인터넷 웹사이트(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3년 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기부천사 김장훈이 선택한 아이토크비비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100

크레딧 보상*

행사기간 2012년 11월 15일 까지

무 계약기간도 없다! * **개통비도 없다!**

모르셨습니까? 아이토크비비는!

- ▶ 집전화 미국·한국 무제한 통화
- ▶ 휴대폰에서도 국제전화 무료 (매월 500분)
- ▶ 미국 전화번호·한국 070 번호 동시 제공**
- ▶ 365일 한국어 서비스센터 운영
- ▶ 30일 환불보장 실시

화나셨다면!
이제 집전화 바꾸세요!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미국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304호)

아이토크비비 213.559.7557 |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100크레딧: 글로벌통신를 가입하여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 외 가입 불만여 타관 계약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무료 크레딧은 13번째 달에 적용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어인바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요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착입의 금액은 \$20 인입금(deposit)을 받습니다. 모든 플랜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기타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월)이 부과됩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서비스 해지시 어떤 납부한 회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해외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S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가
과감하게

깎아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는 자체 파이낸싱 및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차 페이먼트를 과감하게 깎아드립니다. 다른 딜러에서는 경험할수조차 없는 페이먼트 플랜!! 오늘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만나보십시오.



골프장 무료 라운딩 쿠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행사기간: 2012년 11월 1일-30일)



평생 무료 세차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분들에 한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한지 1년이 되셨습니까?
- 미국 현역 군인 이십니까?
-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 다른 워런터를 사셨습니까?
- 등록비를 따로 내십니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현재 다른 딜러들의 광고 가격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 푸엔테힐스현대에서는 광고 그대로 드립니다.



+ TAX(STK.050068)
\$596

2012 EQUUS ULTIMATE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66,650 / Residual: \$30,659 / T.D.O: \$5,399 Plus Comp Rebate /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ER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5개 획득 **2013 SONATA GLS**



\$121 + TAX(STK.558019)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20,010 Residual: \$12,326
T.D.O: \$3,999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2012 GENESIS 3.8L

대형 세단의 편안함을 실속있게 즐기세요.

\$246 + TAX(STK.203934)

Closed and lease 42 months
MSRP: \$35,210 Residual: \$17,253
T.D.O: \$3,999 / Plus Comp Rebate
For 12K Per Year
1 AT THIS PRICE (O.A.C)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길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